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30년 전 처음 교회에 나가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권사님의 권유로 나는 꽃꽂이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날이 꽃꽂이 솜씨가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꽃꽂이를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던 중에 운전을 도와 주셔서 토요일마다 양재동 꽃 시장에 동행해주시던 두 분이 모두 사정이 생겨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주었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집안일을 마치면 기독교서점에 들러 전도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하고, 교회력 절기에 맞는 꽃꽂이 자료를 공부하며, 전도용으로 압화 카드를 만들기도 하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남편은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아이들은 과외 한번 없이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로 순조롭게 진학하는 축복을 해주셨다. 전원생활을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냇물이 집 앞에 흐르고, 산이 있고, 소일거리 텃밭이 있고, 마을하고는 적당히 떨어져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날 수 있는 곳, 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내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옆을 따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모습이다. 또 한 가지 축복은 주님께서 새로 허락하신 장막이 아주 조용하고 풍광이 좋은 곳이어서 이런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민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모두들 내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나를 60이 넘는 나이에 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남편도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누구에게나 스펀지처럼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아름답게 꾸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평 한마디 안하고 도와준 남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상급이고 축복임을 나는 안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방학/최홍자 권사〉

오래전 계획한 학업의 길을 도우신 하나님!



17년 전부터 계획한 나의 학업의 길을 지금이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기도했고, 불평했던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환경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결혼 전부터 대학원을 가기 위해 학자금을 준비해 놓았고, 결혼 후 2번의 대학원 합격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2월에 2년6개월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가고 싶었으나 아이가 어렸고, 환경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가운데 속상한 마음을 청년 때 다니던 교회 사모님과 의논했다. 그 사모님께서서는 모두가 찬성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셨다. 그때가 언제가 되려나 하는 조바심에 거의 포기하고 있을 무렵 목사님께서서는 이제는 대학원을 다녀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듣자마자 갈 대학원을 알아보니 바로 가을학기에 등록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었다. 가정상담학과에 입학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했다. 내가 다니려던 대학원은 우리 지역에서 가려면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를 대학원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록 열어주셔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도로는 다니면서 차들이 거의 없어 이 길을 왜 만들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한산한 도로였다. 나를 위한 예비라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길을 오갔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미리 식사를 준비했고, 집안의 일들을 정리하고, 교회에 다른 일들을 다음으로 조정하며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지낸 2년 6개월이었지만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아이들과 목사님의 배려에 감사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학업에 필요한 상담을 도와 주신 성도님들의 성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쪼개어 졸업을 축하해 주신 권사님들,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 성도님들, 마무리하는 나에게 더욱 격려와 힘이 되어 준 감사한 일이었다. 이것을 통해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상담자가 되고 싶다.

〈정남미 사모〉

3.1절 기획 3.1독립운동, 한국 감리교회의 두 영웅!

3.1절 만세운동 당시의 동태

일제의 침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주독립 사상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 정신이 민족애로 분출된 숭고한 만세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일(因山日)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독립을 외친 항일투쟁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대표 33인.

기독교회 내에서는 1919년 1월 말~2월 초에 걸쳐 손정도 목사가 이승훈, 양전백 등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협의한 후 평양, 선천, 정주 등 서북지역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직화에 착수하던 중 2월 7일 이승훈이 연합전선을 펴자는 천도교 측 최린의 연락을 받고 상경(上京)해 천도교와의 연합을 추진, YMCA 간사인 박희도, 세브란스 병원 제약주임인 이갑성 등과 강기덕, 김원백 등 전문학교 학생대표들도 독립운동계획을 협의했다.

학생단은 처음 학생들 단독의 독립시위 운동을 계획했으나,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전선을 준비하던 종교계에서 합류할 것을 종용, 이에 합류, 2월 24일 한용운, 백용성 등 불교계까지 포함한 범종교계 중심으로 민족 대연합전선을 이룩하고 구체적 독립운동 추진방침을 결정했다.

파고다공원의 한국 감리교회 두 영웅, 정재용과 이규갑

거사 일을 3월 1일로 정하고, 선언서는 최남선에게 기초하도록 했으며, 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종단별로 선정한 것이 33인이었다. 그 대표 가운데 기독교계 인사가 16명이었다. 이승훈,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신홍식, 박희도, 오화영, 정춘수, 이갑성, 최성모, 김창준, 이필주, 박동완, 신석구 등이었다.(감리교회 10인)



독립선언을 계획한 태화관.

파고다공원에 약5천여 명이 모여 33인 대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군중들은 33인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보성전문학교 학생대표 강기덕은 태화관으로 가 33인 대표가 파고다공원으로 가지 않으면 권총으로 모조리 죽이겠다고 위협할 정도였다.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평양감리교회 이규갑 전도사(서대문교회 설립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주 교회학교 교사 정재용(鄭在鎔)의 손을 붙들고 파고다공원으로 달려갔다. 공원에 운집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표정은 긴장과 불안이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규갑 전도사는 경신학교를 졸업한 해주 청년 정재용에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라고 강권하여 정재용이 주머니 안에 간직한 선언서를 꺼내 태극기 물결 속에 낭독 선포했다. 〈중략-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소식 이주익의 글〉



갈렙선교회



룻여성교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축제

남녀 대결로 이어진 축제의 함성
지난 21일 70세 이상 교우들의 모임인 갈렙선교회는 이번 대보름을 맞아 선교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윷놀이로 저녁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윷이나 모가 나오면 라면을 보너스로 지급하고 남성과 여성부인조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맛있는 찰밥은 입맛을 돋구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겨울 밤의 즐거운 하
지난 28일 73~79세로 구성된 룻선교회는 한나여성교회를 모시고 여성교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날 단합을 위한 윷놀이는 1등 하신 분에게는 라면 5봉과 2등 하신 두 분에게는 라면 4봉을 증정했고 함박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이수길권사〉

〈김경자장로〉